

도시형 태양광 비즈모델 확대 전략 수립

◆ 산업부, 에너지공단은 도시형 태양광 사업비전* 선포(7.13)에 따라 도시형 태양광 사업추동력 확보를 위한 비즈모델 안내

* 2022년까지 5.7GW 보급 목표(산업단지 태양광 3.2GW 포함)

□ 도시형 태양광 추진현황

- (배경) 도심지 주택·건물·시설물 등에 태양광을 집중 보급하여, 도시형 태양광 보급의 가시적인 성과 확산을 위해 투트랙 추진 전략 수립

< 도시형 태양광 확산 추진 전략 >

- ① 주택·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은 예산증액, 대여사업으로 보급 확대
- ② 국가·지방기관(시설물), 기타 민간건물등은 예산지원, RPS 유도 동시 추진

- (자가용)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(이하 보급사업) 예산 증액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및 태양광 대여사업 병행추진으로 보급속도 가속화

* 보급사업 지원예산 : '18년 2,259억(기금변경 반영) → '19년 2,883억(정부안)

- (공공시설) 국가·지자체 시설,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운영 또는 RPS 사업추진 등 사업모델 다각화 유도

- (국가기관) 정부청사, 관공서(경찰서, 소방서, 우체국 등), 학교(국립), 고속도로·철도·공항 유희부지 등에 약 1,180MW 보급추진

* 국유재산의 민간 임대 등을 통해 상업용 보급 병행추진 예정

- (지자체기관) 지자체 청사, 학교(공립), 체육·여가시설, 상하수 처리장, 매립지 등에 약 2,336MW 보급추진

- (민간) 자가용은 보급사업(건물) 예산확대에 따라 잠재수요를 해소하고, 상업용은 RPS사업·한국형 FIT·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약 3,576MW 보급

< 보급사업(건물지원) 신청/선정 현황 >

연도	신청	선정	선정비율
2017	1,058건, 507억원 신청	453건, 220억원 선정	44%
2018	1,070건, 403억원 신청	1,002건, 349억원 선정	87%

□ 도시형 태양광 비즈모델 확대 계획

- ① 협동조합, 주민참여 등 다양한 도시형 태양광 사업 모델 홍보
- ② 지자체,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

○ 관리주체별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등 개최

- (유관기관) 공공기관, 협회, 발전6사 대상 간담회(9.7, KEA 서울지역본부)
- (지자체) 지방산단 등 지자체 관리시설 비즈니스 모델 설명회(9.11, 대전)

< 도시형 태양광 확대 비즈모델 설명회 개요 >

- (일 시) 2018. 9. 11(화), 14:00 ~ 16:00
- (장 소) 대전 유성구 인터시티호텔(5층 대회의실)
- (참석자) 산업부, 에너지공단, 광역 및 기초지자체 신재생 담당자 약 100명
- (내 용) ① 도시형 태양광 사업 아이템 ② 산단 협동조합형 태양광 사업
③ 지자체 주도형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
④ RPS 제도 주요 개정 사항

○ 국가 산단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

- (대상) 수도권, 충청, 경상, 전라, 강원 등 5대 권역별 입주기업
- (내용) 김해·광주 시범사업 + 추가 모델 등 소개로 기업 참여 유도
* 非산단 산업체는 에너지대전 등과 연계하여 안내 계획

○ 유관기관 간 도시형 태양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공공기관과는 **합동**, 민간 협회(백화점, 주유소)와는 **개별 MOU** 추진
- 지역본부는 지자체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 검토·추진

□ 시사점

- 도심지역 시설 및 유휴지 활용을 기반으로한 도시형 태양광 모델 확산으로 **부지확보, 계통접속 여건 및 주민수용성** 제고와 동시에,
-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에 따른 지속적 노력을 기반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정책 달성 가능성 기대

<출처>

1. 신재생에너지부문

- 국내이슈 < 도시형 태양광 비즈모델 확대 전략 수립 >
 - 한국에너지공단, 도시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위한 지자체 협업 사업모델 설명회 개최
(한국에너지공단 보도자료, 2018.9.11.)